# 광주 대표 마을기업 육성…공동체 정신 살린다

## 市, 플리마코협동조합 등 4곳 예비기업 선정

## 교육·컨설팅·상품개발·마케팅 등 집중 지원

광주시가 민선 6기 들어 추진중인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성 확보 등을 위한 '광주 대표 마을기업' 육성에 나선다.

도시지역 내 마을 단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수익 창출형 마을기업을 만들어 내는 게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30일 "최근 '예비마을기업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 중인 4개 단체를 2015년도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해 총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 단체는 ▲'장동 플리마켓 거리'를 운영할 플리마코협동조합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게스트룸 사업을 시행할 버들마을협동조합 ▲지역 농산물 판매사업을 할 아낙네녹색푸드농업회사법인 ▲헌옷 업싸이클링 제품 제작 판매 및 의류 전문 리싸이클링 장터를 운영할 예쁜손공예협동조합 등이다.

시는 마을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내실 있는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예비마을기업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다.

마을기업 설립준비 단계에 있는 단체를 발굴해 교육·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며, 우수업체는 다음해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천한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2년간 최고 8000만원(1년차 5000만원, 2년차 3000만원)까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동진 광주시 일자리정책관은 "예비마을 기업 선정은 설립준비 단계부터 세심한 지원을 통해 뿌리가 튼튼한 기업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목적"이라며 "광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마을기업들이 광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이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국제기후환경산업전 내달 9일 개막

## 11일까지 DJ센터서

## 143 업체 381개 부스

친환경 신기술이 총집합하는 '제7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다음달 9일부터 11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기후환경산업전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상생발전과 호남권 환경산업의 공동 육성 의지를 담아 마련했다.

기후·환경 전문 국제전시회인 이번 행사에는 환경 관련 우수 중소기업, 대기업, 전문 환경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 등 143개사가 381개 부스를 마련해 참가한다.

기후변화산업관, 대기·폐기물관, 수처리관 등 전문 분야별로 이색 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인다.

기후변화산업관에 참여한 ㈜파낙스는 매립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전기에너지로 자원화하고 동시에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신기술을 알린다.

대기·폐기물관에서는 음식물처리 분야에서 국내 유일하게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한 ㈜케이아이에코시스템이 가구별 카드 인식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는 장비를 출품한다. 수처리관에서는 ㈜청호환경개발이 태양광을 이용한 물순환으로 담수호·저수지·인공호수 등 수질을 개선하는 기술을 전 세계에 과시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폐자원을 활용한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홍보·전시·재활용사례를 홍보한다.

또 기아자동차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전시와 함께 글로벌 환경개선 프로젝트인 '에코다이나믹스' 개념 등을 소개한다.

포스코건설도 하천수를 고도 처리해 공급하는 친환경 정수처리기술을 전시하는 등 대기업의 다양한 친환경 신기술 등도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완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친환경 신기술·신제품 전시와 함께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호남권 환경산업 일자리박람회도 함께 열린다"며 "환경산업 육성과 지역기업 해외 진출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국제안전도시 인증 첫발

## WHO 현지실사…12월 결정

광주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첫 관문인 현지 실사를 받았다. 광주시의 국제안전도시 공인 여부는 12월 초 국외 평가단의 최종 현지실사 후 결정된다.

광주시는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WHO CCCSP)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1차 관문인 사전 현지실사를 27일부터 이틀간 시청과 관련 기관 현장 등 4곳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아주대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장 조준필 소장 등 4명의 국내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현지실사단은 광주시청 17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전도시사업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6개 분과위원회로부터 안전증진프로그램 추진 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119상황실 및 재난안전상황실,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집중 점검했다.

또 어린이교통공원, 금동 여성안심구역 등을 방문해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안전 관리상태도 꼼꼼히 살펴봤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지난 28일 상무리츠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제6회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에서 참가 유아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계측을 하고 있다. 광주시가 주관하고 광주시간호사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생후 4~6개월의 모유 수유 아기 85명과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 제공〉

# 메르세데스-벤츠, 광주서 '사랑의 쌀' 전달

## 저소득층에 1087포

광주시는 "지난 28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로부터 저소득층 한부모와 조손가정을 위한 2500여만원 상당의 '사랑의 쌀' 1087포를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시는 이날 전달받은 쌀을 자치구에서 선정한 아이들과 청소년이 있는 저소득층 한부모와 조손가정에 1포씩 전달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다임러 계열사 및 11개 공식 딜러사의 임직원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시에 사랑의 쌀을 기부했다.

이날 기증식에 나선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신성자동차 김효규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쌀을 전달하기 위해 이웃 사랑의 마음을 모았다"면서 "앞으로도 메르데세스-벤츠는 이웃 사랑 나눔을 통한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용연정수사업소 소속 공무원 3명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동시 합격 화제

박홍열

김태혁

류열상

## 상수도 분야 최고 자격증

광주시 공직자 3명이 환경부 주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동시 합격했다.

30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2015년도 상반기 제17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1급에 용연정수사업소 소속 박홍열(50·공업 6급), 3급에 김태혁(43·공업 7급), 류열상(35·공업 7급)씨 등 3명이 합격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수질분야, 기계·전기분야, 급·배수분야 등 상수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치르는 시험으로 상수도 분야 최고 자격증에 해당한다. 특히 1급은 전국에서 합격자가 3명뿐이며, 기술사 수준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동안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정수시설 자격증 취득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직무연찬과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해 왔다.

범진철 광주시용연정수사업소장은 "우수한 인재 공무원과 함께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안정된 정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